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최숙영[†]

요 약

최근의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 간에 사이버상에서의 왕따와 괴롭힘의 현상과 같은 사이버불링이 국내외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사이버불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된 것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이버불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 및 유형, 전통적인 불링과 사이버불링과의 차이점, 사이버불링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불링 대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사이버불링,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

A Study of the Review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and Its Responding Strategy

Sook Young Choi[†]

ABSTRACT

As smartphone use has become so popular recently, bullying and harassment in cyber space are a growing problem both at home and abroad. While various studies on cyberbullying in other countries began more than a decade ago, there are few studies in Korea.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yberbullying, diverse studies based on in-depth analysis of the problem should be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s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cyberbullying,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and the causes and effects of cyberbullying.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response strategies of cyberbullying and then suggests its ow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Keywords : Cyberbullying, Cyber-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 정 회 원: 우석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논문접수: 2014년 8월 7일, 심사완료: 2014년 9월 11일, 게재확정: 2014년 10월 22일

1. 서론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14년 6월 기준 3천 8백만명을 넘어서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여성가족부·한국언론학회(2013)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의 채팅과 게임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새로운 학교폭력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이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상의 괴롭힘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최근 들어 한국사회의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4 한국청소년사이버불링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27.7%가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이버불링이란 이메일, 문자메시지,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2]. 특히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에서의 괴롭힘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전파력이 강해 상대방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6년 여고 2년생의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한 저주 사이트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된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미국 사회에서 사이버불링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현황 조사와 사회적인 예방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

근에야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사이버불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사이버불링 정의 및 유형, 특징, 원인, 영향 등을 살펴본다. 또한, 외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수행되어온 사이버불링 대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사이버불링의 대응 방안에 논의한다.

2.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

2.1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의 및 유형

2.1.1 사이버불링의 정의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이버불링은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동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가해 청소년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텍스트 문자나 SNS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통제하며,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다[3].

사이버불링에 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불링과 학교폭력을 구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링을 학교폭력의 하위 범주 내지는 유사 개념으로서 보고 있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와 차별 및 강요의 특성을 갖는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폭력의 범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불링은 학교폭력에 비해 은밀하고 간접적이기 쉽고, 정서적이며 관계적인 영향력을 포함하는 주관적인 폭력의 범주에 가깝다[4].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1970년대부터 불링을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로 사용할 정도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본에서는 이지메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는 집단 따돌림 내지는 왕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지칭해 왔다. 불링은 힘의 불균형 관계에 있는 약자에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

는 것으로 정의된다[5][6].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한 불링이 유행하면서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불링과 더불어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면대면 상황이 아닌 익명성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불링과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는 한 불링의 형태로 정의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 불링의 정의에 나타난 ‘지속성’과 ‘힘의 불균형’을 사이버불링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처음에 한번 업로드했다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여러번 반복적으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힘의 불균형의 경우에도 불링은 육체적/심리적으로 약자에게 행해질뿐 아니라 지원세력의 수적인 면에서도 나타나는 반면에 사이버불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이버불링에서는 육체적 강자일 필요도 수적으로도 지원세력이 많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Slonje, Smith, and Frisen(2013)에서는 사이버불링에서의 힘의 불균형의 가능성은 ICT 기기에 대한 기술적 능력과 익명성으로 보고 있다[7].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의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내려졌는데, Patchin & Hinjula (2006)는 “전자 매체를 통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7]. Smith et al. (2008)는 “쉽게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그룹 혹은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8].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사이버폭력, 사이버왕따, 사이버따돌림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2012년 개정안에서는 사이버불링을 대신하여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협박이나 강요, 폭력 등의 전반적인 괴롭힘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1.2 사이버불링의 유형

사이버불링 유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Smith와 그의 동료(2008)들은 사이버불링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유형을 휴대폰 호출, 텍스트 메시지, 그림/비디어 클립 불링, 이메일, 채팅룸, 인스턴트 메시징과 웹사이트로 분류하고 있다[8]. 이와 유사하게 Snakenborg와 그의 동료들(2011)은 가장 일반적인 사이버불링의 8가지 형태를 사이버불링에 사용되는 기기와 기술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다[9]. 그 8가지 형태는 이메일, 모바일폰, 인스턴스 메시징, 채팅룸과 게시판, Youtube와 같은 비디어 호스팅 사이트, 웹캠, Facebook이나 Twitter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상학습 환경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의 형태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직접 접촉하는 형태와 피해학생 모르게 진행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0].

사이버불링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행위와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Willard (2007)은 욕설(flaming), 사이버모욕(harassment), 명예훼손(denigration), 위장 impersonation), 폭로(outing), 협잡(trickery), 배제(exclusive), 그리고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1], 많은 연구들이 이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Kowalski와 그의 동료들(2008)은 해피슬래핑(happy slapping)을 사이버불링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12]. 최근에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형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유형을 섹스팅(sexting)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것을 사이버불링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Weber(2011)는 사이버불링을 익명(anonymity), 가명(pseudonyms), 욕설(flaming), 가장(masquerading),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 폭로(outing), 사이버모욕(harassment), 배제(exclusive)로 분류하고 있다[13]. 조윤오(2013)는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형태를 고려하여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조윤오(2013)의 12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사이

버블링을 재분류하고 그 의미와 국내외 관련 유형들을 연결시켜 <표 1>와 같이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2 사이버불링의 특징 및 그 영향

사이버불링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불링과 함께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불링은 전통적인 불링과 달리 익명성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의 반응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움의 정도를 잘 알 수 없고 동정심을 느낄 수 없을 뿐 더러 죄책감이 저하된다[15].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통적 불링은 학교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이버불링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상의 악의적인 메시지는 SNS나 공용 게시판에 올려졌을 때 피해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청중들이 볼 수 있으며, 또한 단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받는 고통은 매우 클 수 있다[10][16]. 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통적 불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나 학부모 감시 밖에 있을 수 있으므로 사이버불링이 발생을 해도 어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안다고 해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7]. 이러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특징 외에 Smith (2012)는 사이버불링이 기술적인 전문성의 정도에 의존하고 방관자 역할의 다양성이 전통적 불링에서 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사이버불링의 또 다른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25].

사이버불링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불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낮은 자존감, 우울증, 분노, 염려, 무력감, 대인기피, 자살충동 등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불링

<표 1> 사이버불링의 유형

사이버불링 유형	내 용	국외 사이버불링 관련 용어	국내 사이버불링 관련 용어
사이버 스토킹 (Cyber Stalking)	•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글·사진·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Cyber Stalking	
사이버 비방 (Cyber Slander)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Harassment Denigration	사이버감옥
이미지 불링 (Image Bullying)	•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Happy slapping Photoshopping	
사이버 위장 (Cyber Impersonation)	•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Impersonation Masquerading Identity theft	아이디 도용
사이버 강요 (Cyber Coercion)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나 심부름 시키는 행위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셜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명령 사이버 갈취 게임아이템서플 와이프이서플
사이버 성폭력 (Sexting)	•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Sexting	
사이버 따돌림 (Cyber Exclusion)	• 사이버상에서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친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친구신청 거부 또는 배제하는 행위	Exclusion	안티카페
플레이밍 (Flaming)	• 공적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일부러 자극하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 있음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Trolling Flaming	
사이버 폭로 (Cyber Outing)	•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Outing	

의 피해 학생은 두통, 불면증, 복통, 신체적 증상과 같은 심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사이버불링은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는 학교생활에서 집중력의 약화, 학교 기피 현상, 결석의 증가, 낮은 학업 성취도, 학교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사이버불링이 갖는 불링 메시지의 보존성,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불링에 비해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심할 수 있다. Slonje and Smith (2008)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이용한 불링보다 사진/비디오를 매체로 한 불링의 경우 전통적인 불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20]. 또한, 피해자에 관한 비방과 모욕스러운 내용으로 피해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관계형 불링이 다른 불링보다 심각하다고 기술하고 있다[21]. 이창호와 이경상 (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교량형 소셜미디어보다는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및 확장이 용이한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결속형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불링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4].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은 가해자에 의해 불링을 당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링으로 인해 학생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자기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부정적 자아개념, 정체성 저하, 자기존중감 저하, 무능력, 무기력, 죄책감/수치심, 자기비판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들은 결국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23].

2.3 사이버불링의 원인 및 관련 이론

사이버불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환경적 특성,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성이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서 사

이버불링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한다. 비면대성의 특징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감정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불링 수위를 조절할 수 없게 함으로 더욱 심각한 사태로까지 이르게 한다[12]. 익명성과 사이버불링의 관련성에 관련하여 유상미와 김미량(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익명성이 사이버불링과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는 없으나 개인의 정체성과 규범의식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이버불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개인적 요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이버불링의 가해 원인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Pathcin와 Hinduja(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생활에서 긴장과 좌절을 많이 겪는 학생일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여러 가지 요인의 긴장을 경험함으로써 분노, 좌절, 우울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6]. 즉, 학생들은 학업성적과 진로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이버불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이버불링 피해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고 고립되거나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의 가해자들은 부모와 유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과 불링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19]. 이것은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과도 관련이 된다. 이 이론에서는 가정에서 사회기관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갖고 있는 유대가 통제력이 되어 아동들로 하여금 법과 규범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다[23]. 한편,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경우에도 부모와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사이버불링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8]. 또한,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부모나 어른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사이버불링의 가해 유형

가해 유형	특징
권력 갈급형 (Power Hungry)	자기 친구들의 관심을 끌길 원하고 친구들에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
보복하는 희생자형 (Retaliating Victim)	이들의 경우 과거에 사이버 불링을 당했거나 오프라인에서 폭력의 피해자로서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길 원하는 경우이다.
짓궂은 소녀형 (Mean Girl)	이들은 사이버공간을 오락의 공간으로 보며 재미로 혹은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 불링을 하는 경우이다.
복수하는 천사형 (Vengeful Angel)	이들은 불링을 당한 사람의 편에서 복수를 하거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주의한 가해자형 (Inadvertent Cyberbully)	들의 경우 남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생각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Stop Cyberbullying에서는 사이버불링가해자의 유형을 <표 2>와 같이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개인적 가해 원인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해 유형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이버불링의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이용도 사이버불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이버불링의 가해 원인을 개인의 동기 및 성향에 따라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규범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이론과 관련하여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사이버불링을 할 수 있다. 즉, 개인들이 어떠한 행위나 행동이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주위 동료들의 잘못 인식된 태도와 행위가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본래 도덕적 판단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29].

또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다양한 폭력 현상을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폭력행위를 따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습이론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변 문화가 언어폭력에 너그러울수록 사이버불링 발생 가능성이 높게 된다[43].

Sutherland와 Cressy(1978)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30]에서는 다른 사람, 특히 친밀한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행동이 학습되며, 이런 접촉이 얼마나 강하게 자주 그리고 오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폭력행동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본다[23].

2.4 사이버불링의 현황

최근 사이버불링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Knowthenet이 실시한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에 의하면, 13-19세 청소년 2001명 중 65%가 불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44]. 캐나다의 경우 10-13세와 15-17세 학생 5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21.9%, 가해 경험이 29.7%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미국의 경우, Hinduja와 Patchin (2010)이 11-18세 사이의 청소년 4,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약20%가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20% 정도의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사이버불링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10%가 사이버불링에 대한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32], 초·중·고생의 29.2%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학생의 39.0%, 고등학생의 38.4%, 초등학생의 7.0%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40.6%), 중학생(39.4%)이 초등학생(7.4%)에 비해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이버언어폭력(25.2%)과 사이버따돌림(5.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4 한국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27.7%가 "사이버불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온라인상 개인 정보 유출(12%)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게임을 통한 괴롭힘(10.2%)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19.4%는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이버불링의 실태조사가 각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기관에서 무엇에 집중해서 조사하는지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실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의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으로 최근 학교 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2년 2차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7.3%이었는데 13년 1차 조사에서는 9.7%로 증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신종 사이버불링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3. 사이버불링에 관한 대처방안 실태

사이버불링에 관한 대처 방안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3.1 법. 제도적 측면

미국의 경우 불링뿐 아니라 사이버불링에 대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많은 주에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입법을 제안하거나 입법화시켰다. 미국 전역에서 반불링 법안을 갖고 있는 주는 2014년 4월 기준 49개주이며, 그중 20개 주가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주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예방정책과 발견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전문인력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3]. 사이버불링의 경우 그 가해자가 학생이거나 적어도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해서 EU, 독일 등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처벌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예방과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외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이버불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따로 정해 놓고 있진 않지만 2012년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불링

을 학교 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이 일반 불링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반 불링과 같은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2 교육적 측면

사이버불링의 대응 전략으로 법률적 접근 외에 교육적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외국에서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불링에 관련된 비디오나 웨비소드(webisode)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9].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사이버불링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사이버불링만을 교육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의식, 비판적 사고 스킬, 이세이프티(e-safety), 자신의 온라인 위험도 평가, 자신들을 보호할 조치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다[18][34]. 특히, Collier는 디지털 시민의식과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합한 접근 방식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34].

한편, 사이버불링과 같은 사이버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시키는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러한 IT 기기들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35].

또한, 교육과정안에 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러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다. Topcu와 Erdur-Baker (2012)는 공감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이런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36]. 사이버불링에서 방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 교육을 통해 방관자의 역할이 중요

<표 3> 사이버불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기관	교육내용
국 외	The iSafe Internet Safety Program	i-SAFE Inc,	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독 기반의 사이버 불링 방지 교육과정이다. 사이버 시민의식, 사이버 불링, 사이버 보안, 디지털 리터러시 등 사이버 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Cyber Bullying: A Prevention Curriculum	Hazelden, a part of the Hazelden Betty Ford Foundation	K 6-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8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특히 그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사이버 불링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러한 행위에 참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들과 사이버 불링에 저항하고 막는 방법들에 대해 제공
	Sticks and Stones : Cyberbullying	Chase Wilson Education's	사이버 불링의 한 희생자인 피해 학생을 묘사하는 필름을 포함한다. 그 필름은 교사들로 하여금 그룹 토론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교사 가이드와 학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제공
	Let's Fight It Together : What Will All Can Do to Prevent Cyberbullying	Childnet	교실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이버불링에 관한 비디오 세그먼트들과 그에 따른 활동들로 구성되고 특히 11~14 나이의 청소년에 맞춰서 개발된 프로그램
국 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한국 인터넷 진흥원	초,중,고 학생들에 맞게 사이버폭력에 대한 동영상 및 교재를 만들어 제공
	Stopbullying	교육부	학교폭력의 큰 틀 안에서 한 부분으로 사이버폭력예방 자료 제공

함을 인식토록 하고 긍정적인 방관자 행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18].

사이버불링의 예방교육과 함께 사이버불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Machacjova와 그의 동료들(2013)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불링의 대처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적 대처 방안으로 피해 학생들은 먼저 사이버불링이 발생한 웹페이지에 있는 자기 프로파일을 제거하거나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인터넷세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이와 함께 피해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조사된 다른 대처 방법으로는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한 경우 피해학생들은 감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가해자의 가해행동을 멈추는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발표되었다[38]. 이와 유사하게 Hinduja & Patchin(2012)도 사소한 놀림과 같은 심각하지 않은 행동인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응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27]. 이러한 의도적인 무시와 무관심은 심각하지 않는 사이버불링에 대해선 대체로 효과적이지만, 사이버불링의 형태가 보다 악의적

이고 지속적인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7][39]. 이와 함께 지원세력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불링의 상황을 이야기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불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피해학생에게 감정적으로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또한, 피해 학생의 경우 사이버불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2012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이버불링을 위한 예방과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청소년, 교사, 학부모용으로 구분하여 마련하였다[3]. 이 조치 요령에는 사이버불링의 가해자에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 학생 자신이 가해학생에게 직접 보복하지 말고 그 공간을 벗어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불링을 당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을 경우 주변 어른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나 목격자들이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스톱불링앱을 제공하여 익명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신고하여 그 상황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들은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를 통해 같은 나이 또래의 동료 역할이 중요함을 볼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또래 멘토링의 개념이 대두되었다[42].

또래 멘토링의 개념은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에게 조언하고 상담하는 것이다. 또래 멘토링은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개인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예방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이버 멘토(cyber mentor)를 도입하여 육성하고 있다. 사이버 멘토는 5~17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이버불링이 무엇인지, 사이버불링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이버 멘토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교육받은 후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게 된다.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I-safe에서도 I-MENTOR Training Network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은 멘토 학생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책임 있는 사이버 시민에 관하여 또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3 기술적 측면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크게 필터링 프로그램, 모니터링 프로그램, 검색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신고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는 이 분류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있다. 필터링 프로그램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가운데 사이버불링에 관계되는 단어들을 감지하여 알려주거나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 스마트폰 사용통계, 앱 삭제기록 등을 모니터링 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 통신사들이 유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프로그램은 사이버불링의 사례들을 단어와 문구를 통해 분석하여 같은 내용의 사례들을 찾아 제공해주는 형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MIT의 Dinakar 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구현하여 학

<표 4> 사이버불링 대처를 위한 기술 분류

기술분류	특징	국내 프로그램	국외 프로그램
필터링 프로그램	자녀들의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 메시지 가운데 사이버불링에 관계되는 단어들을 감지해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알림	블랙스톤: 모바일가디언 SKT: 학교폭력지킴이	미국: MouseMail 호주: Net-Box Blue에서 개발한 SecureED 엔진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녀의 스마트폰을 모니터링하여 유해 사이트 및 앱 차단, 인터넷 접속시간 관리, 접속한 사이트 및 접속시간 통계 등을 문자로 알림	SKT: 스마트아이코치 LGU+: 자녀폰지킴이 KT: 중독예방알리미 지란지교소프트:엑스키퍼모바일	미국: mSpy, StealthGenie, SpyBubble
검색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무기명으로 디지털오용 및 사이버불링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관심있는 내용의 글을 읽을 때 그것들과 유사한 내용을 찾아 보여 준다		미국: MIT에서 개발한 'A Thin Line'
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유도		호주: Cybersmart 핀란드: 'KiVa Street'
신고 프로그램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상황에 처했을 때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익명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앱이나 시스템 제공	교육부 : 스톱불링앱 레드퀸: 마스크챗(익명 메신저)	미국: The CyberBully Hotline

생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의 상황에 처했을 때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익명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신고하여 그 상황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스크챗’은 발신 번호를 지우고도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신형 메신저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도 교사, 전문 상담원, 경찰 등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솔직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가해 행동을 목격했을 때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이버불링의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사이버불링의 대응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2장에서 기술된 사이버불링의 발생 원인과 3장에서 기술된 기존의 사이버불링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4.1 사이버불링의 발생원인에 따른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발생 원인을 가해자가 사이버불링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과 사이버불링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 원인으로 구분하여 그 대응 방안을 기술한다. 사이버불링의 직접 원인은 미국의 Stop Cyberbullying에서 발표한 가해자 유형과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사이버불링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이버불링 가해 이유에 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사이버불링을 재미나 장난으로 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는데, 사이버공간에서 무책임한 행동들이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불링 가해의 다른 이유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피해를 당해 이를 보복하거나, 자신을 놀리거나 화나게 해서 불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링을 당한 친구의 편에서 보복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의를 위해서 마땅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경우에는 불링을 대처하기 위해

또 다른 불링을 하는 것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아무 생각없이 부주의하여 사이버불링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이버불링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의 간접 원인으로서는 사이버공간의 환경적 특성, 학생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경험, 집단 동조 현상, 부모와 유대관계의 부족, 스마트폰 및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의 관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징으로 인해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자아정체성의 혼란으로 사이버불링이 쉽게 발생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고 타인을 존중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절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들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개인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찰하고 문제 상황에서 생각, 느낌, 동기 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릴렉스와 분노조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 스킬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학교풍토는 학생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induja와 Patchin (2011)의 조사에 의하면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을 경험하지 않았던 청소년보다 자신들의 학교에서 부정적인 학교 풍토와 문화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7]. 긍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소

통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주도하여 학교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 풍토 또한 학생들을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위주의 풍토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분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규범의 관점에서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상반이 되는 행동이라도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여 사이버불링에 참여하거나 암묵적으로 이를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된 사회적 규범을 정정하려는 의도된 간섭이 필요하다. 즉 다수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와 행위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사이버문화를 형성해감으로써 잘못된 인식된 규범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유대관계가 적은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인터넷 사용 규칙’ 혹은 ‘핸드폰 사용 규칙’ 등을 마련하여 자녀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4.2 교육.기술.문화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앞절에서 살펴본 사이버불링의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이 적절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연계되어 교육, 기술, 문화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불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의 가해 이유로 재미나, 이유 없이, 혹은 사이버불링인

지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유형, 실제 사례들, 발생원인과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불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거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해자에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표현 후에도 가해자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 함께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 요구된다. 즉,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감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사이버불링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고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의 측면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 스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스킬과 화가 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감정조절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멘토와 같은 또래를 이용한 사이버불링의 교육도 관심을 갖고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불링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술적 접근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흥미롭게 다가 갈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불링 예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

Thin Line과 같은 검색 프로그램과 Cybersmart, KiVa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Cybersmart와 KiVa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등을 게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불링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사이버불링을 예방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교육, 홍보 활동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인터넷 선물달기’, ‘바른말·고운말 사용하기’, ‘건강한 인터넷 지키기 서약’과 같은 운동들은 민간 차원 활동의 좋은 사례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민간차원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통해 표출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 및 특징, 사이버불링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 사이버불링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사이버불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교육, 기술, 문화 등의 각 영역별 노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협조적인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불링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에 관련된 사안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은 기관마다 중복된 내용이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여러 교과들에서 중복되거나 일관성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장기적이고 체

계적인 틀에 의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여성가족부·한국언론학회 (2013).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문화조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 [3] 김봉섭, 이원상, 임상수 (2013.6).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정보문화 이슈리포트* 13-0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 [4] 임상수 (2013. 10). 학교 교육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 방향. 2013년 정보통신윤리 교원연수 자료집.
- [5] Olweus, D. (1999). Sweden. In P. K. Smith, Y. Morita, J. Junger-Tas, D. Olweus, R. Catalano, & P. Slee (Eds.), *The nature of school bullying: A cross-national perspectiv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6] Rigby, K. (2002). *New perspectives on bullying*. London: Jessica Kingsley.
- [7] Slonje, R., Smith, P., & Frisén, A. (2013). The nature of cyberbullying, and strategies for prev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26-32.
- [8] Smith, P. K. et al.(2008). Cyberbullying :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 376-385.
- [9] Snakenborg, J., Van Acker, R., & Gable, R. A. (2011).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to protect our children and youth. *Preventing School Failure*, 55(2), 88-95.
- [10] Ouytsel, V., Walrave, M. & Vandebosch, H. (2013). Correlates of Cyberbullying and How School Nurses Can Respond. *NASN School Nurse*, Retrieved from <http://http://www.sagepub.com/journals>

- Permissions. nav.
- [11] Willard, N.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12] Kowalski, R. M., Limber, S. P., & Agatston, P. W. (2008). *Cyber 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ag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13] Weber, C. (2011). Types of cyberbullying. Retrieved from Cyberbullying <http://www.cyberbullying.info/whatis/types.php>
- [14] 조운오 (2013). 신 사이버불링 유형과 문제점, 학교폭력 2.0 :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 [15] Mason, K. L. (2008). Cyberbullying: A preliminary assessment for school personnel. *Psychology in the Schools*, 45(4), 323-348.
- [16] Heirman, W., & Walrave, M. (2008). Assessing concerns and issues about the mediation of technology in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2(2), 1-12.
- [17] Patchin, J. W, & Hinduja S.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 Juvenile Justice*, 4(2), 148-69
- [18] Smith, P. K.,(2012). Cyberbullying and cyber aggression. In S.R. Jimerson, A.B. Nickerson, M.J. May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intern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pp. 93-103). New York, NY: Routledge.
- [19] Agatston, P., Kowealski, R., & Limber, S. (2012). Youth views on cyberbullying. In J. W. Patchin, & S. Hinduja (Eds.),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response : Expert perspective* (pp. 57-71). New York, Ny : Routledge.
- [20] Ybarra, M. L., Diener-West, M., & Leaf, P. J. (2007). Examining the overlap in Internet harassment and school bullying: Implications for school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42-50.
- [21]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bullying: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 147-154.
- [22] Straude-Muller, G., Hansen, B., & Voss, M. (2012). How stressful is online victimization? Effects of victims's personality and properties of the incident.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9, 260-274.
- [23] 이창호, 이경상(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특성을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 (3), 259-285.
- [24] Schneider, S. K., O'onnell, L., Stueve, A., & Coulter, R. W. (2012). Cyberbullying, school bully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regional census of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1), 171-177.
- [25] 송재홍외 12인 (2012). 교대용 맞춤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재 개발, 한국연구재단
- [26] 유상미, 김미량 (2011). 사이버 폭력의 원인에 대한 구조 모델의 제시와 검증, *한국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4(1), 23-33
- [27]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7.
- [28] Accordino, D. B., & Accordino, D. B. M. P. (2011). An exploratory study of face-to-face and cyberbullying in sixth grade students. *American Society Education*, 40(1), 14-30.
- [29] 김봉섭, 박종선, 감동은, 진상기(2013). 사이버 불링 발생과 정보매체활용 간의 상관분석 :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6(5), 17-29.
- [30] Salancik, G., & Pfeffer, J. (1978).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3, 223-253.

- [31] 이정기, 우형진 (2010). 사이버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7(1).
- [32] Sutherland, H. and Cressey, R. (1978) Principles of Criminology. 10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33] Knowthenet (2013). Nineteen year old males revealed as top trolling target. Retrieved from <http://www.knowthenet.org.uk/articles/nineteen-year-old-males-revealed-top-trolling-target>
- [34] Wade, A., & Beran, T.(2011). Cybebullying: The new era of bullying.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6(1), 44-61.
- [35]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진흥원 (2013). 2013년_사이버폭력_실태조사_최종보고서. pdf
- [36] 최유진, 홍승희(2012). 『사이버블링(Cyber 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분석』. 한국 법제연구원.
- [37] Collier, A. (2012). A 'Living Internet': Some context for the cyberbullying discussion. In J. W. Patchin, & S. Hinduja (Eds.),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response: Expert perspectives.
- [38] Cassidy, W., Brown, K., & Jackson, M. (2012). 'Under the radar': Educators and cyberbullying in schoo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 520 - 532
- [39] Topcu, Ç., &Erdur-Baker, Ö. (2012).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as mediators of gender differences in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5), 550-561.
- [40] Machackova, H., Cerna, A., Sevcikova, A., Dedkova, L., &Daneback, K. (2013). Effectiveness of coping strategies for victims of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7(3),
- [41] Parris, L., Varjas, K., Meyers, J., & Cutts, H. (2011).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Coping With Cyberbullying. Youth &Society, 20, 1-23.
- [42] Hinduja, S., & Patchin, J. W. (2011). Cyberbullying: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sponse.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 [43] Tokunaga, R. (2010). Following you home school : A critical review and synthesis of research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Computers in Hunam Behavior, 26, 277-287.
- [44] Aricak, T., Siyahhan, S., Uzunhasanoglu, A., Saribeyoglu, S., Ciplak, S., Yilmaz, N., & Memmedow, C. (2008). Cyberbullying among Turkish adolesc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253 - 261
- [45] Cassidy, W., Brown, K., & Jackson, M. (2011). Moving from cyber-bullying to cyber-kindness: What do students, educators and parents say? In E. Dunkels, G.-M. Franberg, & C. Hallgren (Eds.), Youth culture and net culture: Online social practices
- [46] Livingstone, Sonia, Leslie Haddon, Anke Görzig, and Kjartan Olafsson 2011. Risks and Safety on the Internet: The Perspective of European Children, London: LSE.



최 속 영

1998 전북대학교
전산학과(이학사)
1991 전북대학교
전산학과(이학석사)
1996 충남대학교
전산학과(이학박사)

2008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교육공학 및 원격교육(교육학박사)

1996~현재 우석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2012.3~2013.2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연구교수

관심분야:이러닝시스템,컴퓨터과학교육,사이버블링

E-mail : sychoi@ws.ac.kr